

한국형 영어학습동기의 3요소: 필요성, 성실성, 실패내성¹⁾

배 대 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영어학과

Basic 3 Elements of English Learning Motivation for Korean ELLs

Daekweon Bae
Department of English,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bdk@gntech.ac.kr

Abstract

Following the presentation in the last year 2019, this presentational paper also deals with the motivational issues for Korean chronic beginners. From 2019 to 2020, in-depth investigation has been conducted on what is the core constructional factors of the English learning motivation for Korean ELLs. Korean EFL situation has the similar level of English-learning difficulties with other EFL countries and what is more could be the peer-pressure and senior-pressure, including the learner's own parents, that make the learners feel non-confident or even incompetent. Under this specific cultural context, Korean cultural features regarding English education has been considered and three studies have been implemented to figure out what the core constructional factors might be. As a result, the perception on the needs of learning English either for job-seeking or study purpose was one of the factors and the conscientiousness that can make once triggered motivation persist until when the intended learning outcome is accomplished was another important constructional factor. Many of the chronic beginners who perceive appropriate English learning needs might lack in the motivational endurance. Finally, the power to recover or overcome expected and inevitably frequent failure in the process of English learning was also the essential constructional factor to realize the educational goals.

1. 서론

만성적 영어초급학습자(chronic beginners)란 영어학습을 시작한 지 1년 또는 2년 등의 '시작단계'의 시간을 충분히 보냈지만, 아직도 중급 또는 고급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초급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영어학습자를 말한다. 대한민국과 같이 열악한 학습환경인 EFL 학습환경에서는 영어를 학습하는 다수의 성인학습자들이 만성적 초급학습자로 남아 있는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학습 환경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효율성 높은 학습방법의 부재, 그리고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학습효율성의 저하, 주위의 과도한 관심 또는 성적위주의 압력으로 인한 학습 동기의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어학습환경의 제한점은 아래 그림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 본 발표는 2019년 및 2020년에 이루어진 발표자의 연구논문 3편(참고문헌)의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한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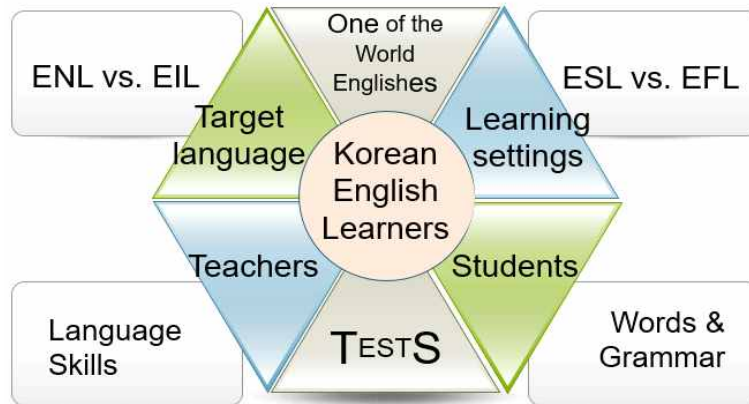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적 EFL 학습상황 [3]

영어권 국가에서 배우는 모국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Native Language, ENL)는 이제 EIL의 지위를 가지면서 다양한 영어구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영어교육 현장에서 학습대상으로 삼는 목표어(target language)의 정체성은 영어교육 발아기인 19세기 말에서부터 EFL이었지만, 영어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는 일본의 동도서기(東道西器)적 직수입시도를 통해 많은 ESL적 수단들이 도입되었고, 수입 후 모방과 응용의 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영어교육의 대상은 준거적 정확성(accuracy)이 요구되는 ENL보다는 의사소통적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에 초점을 맞추는 EIL에 가까워지고 있다. 영어가 제2언어로 사용되지 않아 노출(exposure)이 빈약한 한국 영어학습자들은 학습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시험에서 찾게 된다. 이는 한국적 삶과 행복에는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일 수 있다. 영어의 능숙한 구사력이 필요한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경우 학습성과가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의 토익(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OEIC) 시험으로 귀결되면서 토익점수가 당면한 영어학습의 목표가 되는 것은 한국적 EFL 맥락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토익 소비국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영어교육의 역사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출세 수단으로서의 영어”의 잔재일 수도 있는 취업과 진로와 연계된 영어학습적 인식은 중요하게 인지되어야 할 한국적 EFL 맥락의 특수성 중 하나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점수로 계량화된 사회진출의 수단이면서 글로벌 시대의 핵심역량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성과는 전국민적 수준의 지대한 관심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노력 투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저조한 편이다.

2. 필요성과 영어 학습 동기[3]

필요성에 대한 한국 성인 영어학습자의 인식은 일상생활(D), 취업(E), 진로(C), 학업(C)의 4가지로 분류되는 DECC 설문지로 측정해 볼 수 있다. 진로를 위해 영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당면한 취업이라는 과제에 대한 인식과 별도로 구분하여 바라보아야 하며, 해외체류를 해야 할 필요성도 일상생활보다는 진로와 더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요인분석 상의 변화를 통해 한국 학생들의 영어학습 필요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로적 필요성과 단기적인 과제로서의 취업을 위한 필요성을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적 영어학습 맥락에서 영어구사력의 검증은 대개 공인점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생활 4년 동안 영어학습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취업 및 진로를 위한 선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목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최종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이는 인간의 행위원인을 심리 및 인지적 차원에서 탐구하는 것으로서, 영어학습과 같이 다소 장기간에 걸친 목표행동의 지속이 요구되는 대상의 경우 필요성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다.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이나 전통경제학이 기본가정으로 삼고 있는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행위모델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행동경제학의 견지에서 볼 때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과도한 가정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당위성엔 대부분 공감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무엇이 학생들의 학업참여를 독려하고 지속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실체적인 관심과 다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언급한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PBC)의 작용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성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노력을 갈구하지만 그 바람직한 이성적 판단이 정의적 여과장치를 지나고 나면 그러저럭 해 볼만하여 만만해 보이는 적당한 수준의 학습과제를 선택하게 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성실성과 영어 학습 동기[1]

성실성은 성격의 한 요소로서 Big Five의 OCEAN 5요소 중 하나이다. 영어학습에 성실하고 지속적인 태도로 임해 온 동기가 높은 학습자라면 성격 요인 중 억제(inhibition)나 불안(anxiety)과 같은 신경증적 성향이 낮고 자발적 의사소통(willing to communicate) 성향이 높은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영어학습 성실성의 척도적 중요성은 충분히 검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거쳐 최종 확정된 한국적 영어 학습 동기척도의 문항으로서 Big Five의 5요인 중 성실성(conscientiousness)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제 1요인 7개 항목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영어학습 성실성(Conscientiousness for English Learning)’으로, 개방성(openness)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구조화된 제 2요인 3개 항목은 내용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영어학습 수용성(Acceptableness for English Learning)’으로 명명하였다. 총 문항은 23개이며, 제 3요인 7개 항목은 영어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계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영어학습 긍정적(Positiveness for English Learning)’으로, 신경성(neuroticism) 중심의 제 4요인 6개 항목은 ‘영어학습 민감성(Sensitiveness for English Learning)’으로 각각 명명하였고, 각 요인의 영문 첫글자를 모아 캡스(CAPS) 모델로 구조화하였다. 본 척도는 만성적 초급자인 한국 성인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론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만성적 초급자란 대한민국이라는 EFL 학습조건 하에서 주입식 교육 및 수능영어 준비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장기간의 영어 학습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자신을 초급수준으로 평가하면서 영어학습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습자를 말한다. 척도의 적용대상인 이들에게 척도의 이해도를 높여 한글원어민(Korean native speakers)으로서 내용을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실행용이성(practicality)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므로 본 척도의 한글명명은 이해도 제고에 기반을 두고 설계되었다.

4. 실패내성과 영어 학습 동기[2]

실패내성(failure tolerance)이란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로부터 곧 회복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의 정도를 말한다. 한국적 학습환경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반복적인 ‘실패’에 대한 태도가 나약하거나 미비해서는 원하는 정도의 영어실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영어학습에서 실패에 대한 내성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느냐의 여부가 영어학습의 성공을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를 위해 실패내성의 주요 요인을 활용하여 감정(Affect)과 행동(Behavior) 그리고 과제수준선호(task Difficulty preference)의 요소를 중심으로 감정 7문항, 행동 5문항, 과제수준선호 6문항 총 18문항의 ABD(Affect, Behavior, task Difficulty Preference)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대한민국의 만성적 초급학습자들이 지니고 있는 실패내성이 어느정도인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척도로서 어려운 과제에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도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감정적 여과장치의 강도 및 행동수행 여부에 대한 수준값을 측정해 볼 수 있다. 실패내성은 감정적인 측면에 대한 측정값을 보여주는데, 성격적 부분에서 기인하는 감정적 요인에는 불안감(anxiety), 회피경향(avoidance), 회복탄력성(resilience), 실패내성(failure tolerance)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그 중 실패내성은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선호여부의 정도와 감정 및 행동적 대응의 영역에서 이미 국내연구를 통해 교육적 척도로서 검증이 되어 있는 개념이며, 이를 영어학습에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 ABD척도이다. 불안감은 언어능력의 개발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패내성의 수준과도 상관관계를 가지는 개념이다. 영어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심리적 속성에도 적절한 관심을 보이면서 필요한 노력과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학술발표를 통해 한국적 영어학습 동기요인의 주된 3가지 구성요인을 탐색하였으며, 각 척도인 DECC 설문지, CAPS 모형, ABD 척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도표의 제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학습동기의 시의적절한 측정은 영어교육 관계자들이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다. 학습동기는 일시적인 마음의 동요나 관심의 집중보다는 변화가능한 성격적 특성으로 보아야 한다. 기질적 특성으로서의 동기를 강조하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성과를 위한 노력은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이 낮은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동원하여 학습성과를 높이하고자 하는 것이 소명적 활동이며, 이를 위해선 다학제간(inter-disciplinary or trans-disciplinary) 지식을 동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변화가 급격하면서도 복잡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항구적인 성격적 특성이 아닌 변화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계발의 대상으로서의 영어학습동기라는 개념을 면밀하게 관찰해보기 위해 개발된 위 세 가지 척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동기상태를 진단하여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수준에 알맞은 학습자료를 선택하는 등의 효율적인 교육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진단은 개선방향의 수립에 기초를 제공할 것이므로, 가용한 수단이 있다면 사려 깊은 교육자로서 그러한 진단도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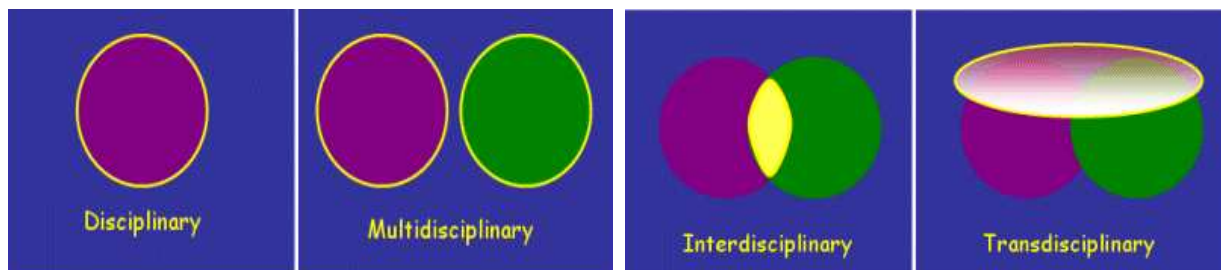


Image Source: <http://www.greenwickschools.org/page.cfm?p=6697> (adapted)

참고문헌

- [1] 배대권 · 김종훈. 2019. “한국적 영어학습 동기척도의 타당화 연구: 성격특성 개인차 요인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어문학* 37(1): 195-221.
- [2] Daekweon Bae & Jonghoon Kim. 2019. “Validation of English Learning Motivation Inventory: Focused on Failure Tolerance.” *Studies in British and American Language and Literature* 132: 183-206.
- [3] 배대권 · 김종훈. 2020. “한국적 영어학습의 도구적 동기척도의 타당화 연구: 필요성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어문학* 38(3): 231-58.